



14년
도내 노사 '노레로 하나 되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음 9월 19일) 제3606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내 대표 강소기업 글로벌 시장 '도전장'

비나텍·정석케미칼·엠에이치소프트 등
세계한인비즈대회 참여로 새로운 기회 맞아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 선보여 경쟁력 입증

"이번 대회는 전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전북 경제가 글로벌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이를 앞으로 다가오며, 전북을 대표하는 강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대회를 통해 이들 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전북 경제가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북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비나텍은 슈퍼커패시터와 수소 연료전지 소재·부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나텍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 있다.

성도경 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더욱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석케미칼은 도료 및 합성수지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세계 무

대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도로 표지용 도료와 환경 친화적인 수성 도료는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김용현 대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며, 글로벌 도로 시장에서의 성장을 확신하고 있다. 정석케미칼은 이번 대회를 통해 그린테크 도료 시장에서 전 세계와 손을 맞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엠에이치소프트는 교육과 IT 기술 융합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에듀테크 미래교육에 특화된 수업관리 교육 서비스부터 네트워크, AI, IoT 분야까지 다양한 혁신 기술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김민호 대표는 "우리는 교육을 넘어, 기술로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IT 교육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엠에이치소프트는 새로운 세대의 교육과 기술 접점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유니크바이오텍(주)은 프로폴리스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최초로 물에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허용갑 대표는 "우리가 개발한 제품은 자연의 힘을 현대인의 건강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다리입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이브이루씨는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초급속 충전기부터 태양광 충전기까지, 화재예방형 스마트충전기 등 이브이루씨는 전기차 충전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현철 부회장은 "우리는 단순한 충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이동 수단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20여 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세계에 선보이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교류할 기회를 갖는다. 이를 통해 전북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나아가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택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북 경제를 글로벌 시장과 연결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전북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

'2024 조선왕조 태조어진 봉안의례'가 열린 지난 19일 전주우거리문화광장에서 태조어진 봉안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전주시청 제공>

세계한인비즈 환영만찬, 전북의 맛·멋 담다

도내 14개 시·군 특산물 활용... 메인요리는 '화합의 상징' 전주비빔밥

정치와 경제에서 '만찬'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의 지지를 다지는 계기로 작용한다.

22일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식 환영 만찬도 전북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매개로 국제적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미리 보는 환영 만찬을 통해 세계 경제인이 하나가 될 특별한 순간을 함께해본다.

이번 환영 만찬은 맛과 멋의 고장 전북의 정수를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글로벌 CEO들과 국내 경제인, 도내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내 14개 시군의 특산품을 활용한 다채로운 음식을 즐기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매력을 체험하게 된다.

도는 음식 메뉴부터 세심하게 기획했다. 환영 만찬 메뉴는 전북의 14개 시·군 특산품을 활용해 구성했다. 김부각과 떡갈비 등 대표적인 전통음식과 함께 전주비빔밥이 만찬의 중심을 이룬다. 전북을 대표하는 음식이자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전주비빔밥은 세계 경제인의 화합이라는 이번 대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핵심 상징으로서 글로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만찬장 음식.

학생들이 만찬 서빙을 맡아 경험을 쌓도록 도왔고, 캠퍼스에서 개최돼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번 대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만찬뿐 아니라, 전북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줄 공연도 함께 마련됐다. 가이름 연주자 이예랑의 전통 음악 공연으로 시작해 유명가수들의 축하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만찬에 참석하는 세계경제인들은 한복 명인인 주영희 대표가 제작한 두부마기를 착용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인 '한비진구'들도 황이슬 디자이너가 고유 조끼인 '뽕자'를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행사 진행을 도와 한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환영 만찬이 한국문화의 분류인 전북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영 만찬은 전북의 풍부한 문화와 음식을 통해 글로벌 리더들에게 전북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제적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특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북의 정성이 담긴 만찬과 공연이 세계 한인 경제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만호 기자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밑그림 '완성'

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당선작 선정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전시 복합 산업(MICE) 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시는 지난 18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용역'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김중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대표사)가 제출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전주컨벤션센터와 주변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과 대규모 전시, 회의 등 행사 시 내·외부 동선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 옛것을 보존하고 과거의 지혜를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은 '지붕산수'의 콘셉트를 제안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